

SPECIAL FEATURE

Korean Artists Today 100+1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Art는 1999년 창간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미술의 역동적인 흐름과 궤를 함께 해 왔다. 20세기 미술의 유산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며 한국미술의 ‘안과 밖’을 종합무진해 왔다. 이제 Art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2016년의 문을 연다. 이번 신년호를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 특별호로 기획, 작가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지난해의 ‘미술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Korean Artists Today 100+16’은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국 작가 116명을 선정, 작가의 최신 약력 및 작품 화보를 정리한다. 여기에 주요 평론의 일부를 세심히 발췌, 소개해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토대로 편집부에서 뽑아낸 작품의 ‘키워드’를 글머리에 심는다. 특별호 제목의 숫자 ‘100+16’은 20세기의 ‘100년’에 21세기의 ‘16년’을 더한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선정 작가의 범위는 2015년에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부터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로 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개인전 장소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국내 지역 미술관 및 전시공간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족적을 세심히 돌아봄으로써 지역별 균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로작가부터 중견, 중진작가를 주축으로 하되, 그동안 미술계에서 맹활약한 30대 중후반 이상의 작가까지 고른 연령 기준을 세웠다. 물론 Art는 30대 이하 신진작가들의 활약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기획을 통해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마당’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잡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고, 종이 잡지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Art는 잡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온라인의 막대한 정보량과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매체만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늘 고민한다. 지면 위에 지나간 역사를 각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앞으로 Art는 매해 신년호를 이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로 꾸릴 것이다. 매년 이 특별호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그려 낸 한 해의 미술지형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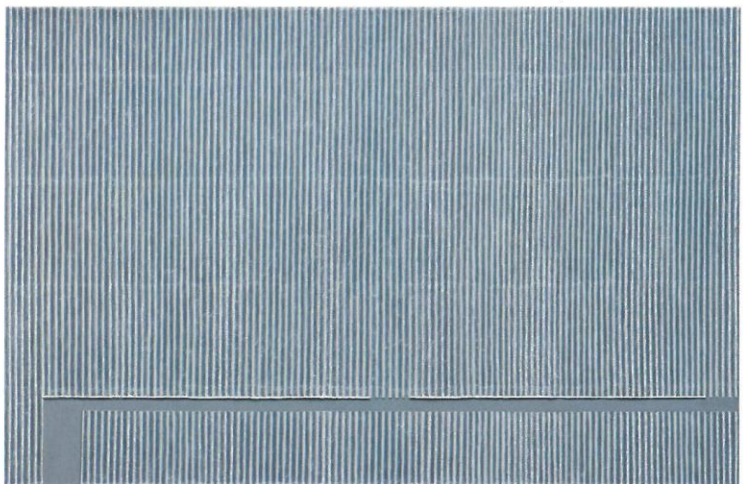
박서보 Park Seo-Bo / b. 1931

홍익대 회화과 졸업 및 동대학원 명예미술학 박사 **Solo Exhibitions** 조현화랑(2015), 파리 페로탱갤러리(2014), 대구미술관(2012), 부산시립미술관(2011), 국제갤러리(2011) 등 **Group Exhibitions** (Dansaekhwa)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2015, (Avant Garde Asia: Lines of Korean Masters) (소더비S2갤러리 2015), (The Art of Dansaekhwa)(국제갤러리 2014) 등 **Awards** 은관문화훈장(2011) **Current Post** 홍익대 미술대학 명예교수, 재단법인 서보미술문화재단 이사장 **Address** www.parkseobo.com



묘선과 물감의 균형 박서보는 과연 선을 긋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화물감의 물질을 돋보이게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가? 이것이나 저것이냐의 이 물음에 대답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것은 또 이들 작품을 드로잉으로 분류하려 들자면 페인팅이라는 성격이 느껴지고 페인팅으로 분류하자면 드로잉이라는 성격을 느끼게 한다는 양의성과 관련된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들 작품은 드로잉에 의한 페인팅이요, 페인팅에 의한 드로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서보의 작품의 특질은 이 양의성에 있다. 물감이 칠해진 면에 그어진 선, 또는 물렁물렁한 물감의 굵어낸 선에 의한 작품에는 선례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과 박서보의 작품이 구별되는 것은 그가 드로잉과 페인팅의 극히 미묘한 밸런스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당장에 박서보의 작품은 물감에 칠해진 화면에 굵힌 선묘화로 간주되고, 이를테면 그 선묘화가 결과한 액션이 운위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묘선(描線)은 틀림없이 손의 움직임에 의해 이룩되고 있다. 그러나 묘선은 유화물감을 눈뜨게 한다. 그리고 물감은 선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것이다. 박서보의 화면은 이 갈등이 밸런스에 의해 태어나고 있다.

/ 나카하라 유스케(미술평론가)



위 · 〈묘법〉 캔버스에 연필, 유채 194.5×300cm 1983
아래 · 〈Ecriture〉 캔버스에 한지, 혼합재료 130×200cm 2012